**곰과 “곰”**

4조 팀이름몇글자까지가능한지몰라서이렇게만큼이나길게지어봤조

이 작품은 인간의 이면이 공존해 있는 모습을 곰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곰이라고 여겨지는 이미지는 그의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곰은 야생에서 이름난 폭군이다. 실제로 곰은 매우 똑똑하며 행동도 재빠르다. 그 날렵하고 민첩한 동물은 지상 최강의 육식 동물로 손꼽히는 생물 중 하나이고, 그 발바닥으로 내리치는 힘은 약 1톤에 해당하는 힘이어서 이 발바닥에 맞아 살아있을 생명체는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곰은 인간이 되고 싶어 했기에, 인간과 함께 하고 싶었기에 자신 본연의 모습을 쑥과 마늘로 감추고 결국 그 모습을 동굴 깊숙한 곳에 두고 나와 인간이 되었다. 테디 베어는 자신의 모습을 귀여움으로 숨겨 언제나 우리 침대 곁에 있는다. “미련한 곰탱이”는 척하는 모습으로 재주를 부리고 돈을 사람에게 가져다 준다. 반면 이러한 이미지는 만들어짐과 동시에 타자에 의해 규정되어 씌워진다. 타자에게 프레임 씌워진 곰은 그들의 이미지 안에서 강제로 살아간다. 일반인 안에서의 곰은 이제 더 이상 야생적인 곰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 같다. 곰은 이제 “곰 같은”, 즉 포근하고 다정한 이미지로써 우리에게 다가온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숨긴다. 따라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그들의 양면의 모습과 공생한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나는 언제나 타자와 대면한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좋든 싫든 간에 나는 나를 타자의 시선에 대응하여 자신을 만들어야 한다. 아군은 적군에게 승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약점을 숨겨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줘야 전쟁에서 승리 할 수 있다. 또한 아주 똑똑하고 자만심 많은 나이더라도 거대한 학문의 경지 앞에선 누구보다 겸손해져야 그 학문과 대면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면에서 본다면, 많은 모습들은 그들의 모습이 아닌 타자들이 좋아하는 상품화된 모습으로 변장 되어 팔린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의 모습보다 겉으로 포장된 모습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이다. 브라운관에 있는 연예인들은 자신들의 본 모습이 아닌 스크린 속의 나를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며 인기를 얻는다. “A는 B이다”고 낙인 된 존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B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결국 A는 B가 된다. 그것이 원래 어떤 것이었던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는가’이기 때문에 규정된 존재는 더 이상 “원래”라는 것은 없다.

두 측면의 나는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나의 본 모습을 숨기고자 또다른 나의 모습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며, 타자에 의해 규정된 이미지에 따라 내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만든다.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보여주며 나의 모습을 바꾼다. 동시에 우리는 생산된다. 그렇다면 계속 정제되고 규정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만든 나일까 만들어진 나일까?